

万葉集의 与·及 표기자 수용과정 연구*

-韓·日 中 비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안 희 정**

(e-mail : hjahn@uu.ac.kr)

目 次

1. 들어가는 말	4.及
2. 선행연구	4.1 개사
3.与	4.2 연사
3.1 개사	4.3 동사
3.2 연사	5.나가는 말
3.3 동사와 경어성	

1. 들어가는 말

일본에서 고대의 기록은 모두 漢字·漢文에 의존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고자 할 때 한자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와 달리 중국어와 일본어의 관계는 언어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문(=중국어)으로 표현할 경우 자국 언어 즉 일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또는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한 相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実字보다 実在的인 내용을 가지지 않아 쓰임에 따라 문맥에 영향을 주는 虚字에 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다. 필자는 이전 日本書紀(니혼쇼키)¹⁾를 대상으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2-A00181)

** 위덕대학교 조교수 상대일본어학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C.K.System'에 따른다. 김용옥(1992) 『東洋学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서울. p.365

‘与’자와 ‘及’자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필자 또한 虚字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万葉集(만요오슈우)에서 쓰인 해당자의 모든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万葉集은 다른 고대 자료와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요집으로 題詞·左注 등에서 한문체의 표기가 존재하나, 본문 가요에서는 万葉假名(만요오가나)의 다양한 표기법이 보이고, 万葉集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大伴旅人·大伴家持·柿本人麻呂 등 주요 작가들의 해당자에 대한 용법에도 각기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虚字에만 초점을 둔다면 万葉集에서의 해당자의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万葉集에 나타난 与와 及 표기자의 용법을 통하여 그 수용과정과 혼독법을 검토하는 데 있다. 단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가요 이외 즉, 題詞·左注 등의 한문체로 국한하기로 하고, 가요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로 넘기기로 하겠다.

2. 선행연구

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与와 及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전혀 없으며, 与에 대해서는 ‘給’字와 관련하여 長尾光之(1969), 志村良治(1977)와 曾根博隆(1998)의 연구가 있고, 조사 ‘卜’의 표기로 사용한 与(大島信生 1986)와 与의 혼독법 연구(宇都宮睦男 1987), 그리고 ‘그스’의 표기와 관련하여 与와 与具의 표기에 대한 연구(柳沢朗 1991)가 있다. 及에 대해서는 小林芳規(1959)의 及字의 혼독에 대한 연구가 유일하다. 즉 논문의 주제로써 与 또는 及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혼독법과 표기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논문이나 단행본, 그리고 주석서 등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선행 논문 중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与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大島信生(1986)는 ‘A与B’의 与가 ‘AとB’의 ‘と’로 읽을 때 전자의 ‘と’의 표기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万葉集에서 与가 표기된 句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하였다. 与의 敬語성과 관련하여 土屋文明(1956)는 与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하위자인 金明軍(余明軍의 잘못임)이 상위자인 大伴家持에게 与자를 사용한 것은 大伴家持가 스스로를 낮추어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小島憲之(1994~1996)는 与의 표기에 의해 卷16-3803 가요의 작자인 부인이 남편보다 신분이 높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卷2-210 가요의 ‘取与’의 혼독법과 관련하여 与의 혼독 ‘あたふ’가 四段動詞인가 下二段動詞인가에 대하여 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1994), 沢瀉久孝(1990)와 井手至(1998)는 下二段動詞로 추정하였다. 山口佳紀(1995)는 古事記(코지키)의 与 표기에 대하여 ‘美刀阿多波志都(上卷)’와 日本書紀 가요의

‘阿党播ぬかもよ’의 사용례를 근거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주다’라는 의미의 유무의 차이는 동사 활용의 차이에 있다고 하였다. 즉 敬語性은 下二段動詞에 있고 四段動詞에는 없다고 하였다. 与가 특수조동사에서 나중에 회구(希求)의 종조사가 된 ‘こそ’의 표기에 대하여 특히 ‘与具’가 ‘こそ’의 표기로 사용된 이유에 대하여 沢瀉久孝와 小島憲之의 언급이 있으며, ‘夢爾所見’의 혼독을 설명하는 중에 ‘こそ’의 혼독첨가(読み添)로 与자의 용법에 대한 기술(蜂矢宣朗 1962)이 있다. 그 밖에 与에 대해서는 ‘取与呂布’의 의미(亀井孝 1955), ‘ク’의 갑을류 혼동(上代語辞典編修委員會)과 変体漢文体(小島憲之)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편 古事記에서 与는 ‘と(と共に)’의 의미로만 쓰이고, 인용의 ‘と’는 음차자로 표기되거나 ‘矣’가 사용될 경우에는 ‘思’와 같은 동사와의 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古事記学会編 1995)과, ‘A与B’의 경우 개사로 보아야 하는지 연사로 보아야 하는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지적(西条勉 1998)이 있다. 마지막으로 宣名(센묘오)에서의 与(永山勇 1963)는 ‘と共に’의 의미인 경우에 한해서 小字가 아닌 大字로 표기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及의 경우에는 与와 달리 상당히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독법이 주를 이루는데 卷11-2461 가요에 ‘及恋’의 及을 ‘しく’ 즉 ‘幾度も・しき’²⁾의 뜻으로 파악하였으며(土屋文明), 沢瀉久孝는 及이 아니라 後の 誤字로 파악하여 ‘のち’로, 그리고 卷2-115 가요는 代匠記(다이쇼오키)를 근거로 ‘おひしかむ’로 혼독하였다. 芳賀紀雄(1990)는 山上憶良의 897번 가요의 題詞인 ‘老身重病経年辛苦及思兒等歌七首(長一首短六首)’의 표기에서 及의 혼독을 기존의 ‘また, および, と, さらに’와 동사 ‘いたす’로 추정된 것에 대하여 ‘いたる’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大久保正(1980)는 及이 조사 ‘まで’의 표기로 사용된 것은 柿本人麻呂와 관련된 가요에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大野透(1962)는 及의 變字法을 언급하였다. 小谷博泰(1999)는 及의 혼독을 ‘および’와 같이 파악하는 것은 후대의 예로 平安시대 이전에는 조사 ‘と’나 접속사 ‘また’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는 의미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与와 及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자에 대한 연구에도 기본적으로 고대중국어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대 일본 자료에서 사용된 与와 及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그 수용 과정에 대하여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西条勉의 언급은 바로 동아시아적인 관점의 결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문제는 고대중국어와의 관계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문체인 日本書紀와 일본식문체(和文体)²⁾인 古事記를 중심으로 与와 及의 여

2) 우리자료의 舊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러 용법 중 虛辭에 초점을 두어 고대중국어 용법의 기준에 벗어난 용법이 있는지 등 오용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런데 万葉集은 歌集으로 歌謡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일본 식문체로 되어 있으나, 노래의 배경이나 성격 혹은 伝本の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 즉, 題詞와 左注 등은 한문체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万葉集의 오용 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 문체와 관련된 특징 및 수용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허사를 포함하여 모든 용법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3. 与

3.1 개사

‘与’는 총 271회가 보였다. 그 중에서 가요 이외에 28예, 가요에 243예가 나타났다³⁾. 介詞⁴⁾와 連詞⁵⁾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용법이 보이는데 먼저 개사 용법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개사로 볼 수 있는 예는 총 4회가 보이는데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長皇子与志貴皇子於佐紀宮俱宴歌(卷1-84 題詞)

②……紅顏共三從長逝 素質与四德永滅…… (卷5-74 題詞)

①은 ‘(A)+与+(B)+場所+副詞+動詞’의 구조인데 大系本⁶⁾에서는 ‘長皇子(ながのみこ)(A)、志貴皇子(しきのみこ)(B)と佐紀宮(さきのみや)に俱(とも)に宴(うたげ)する歌’로 혼독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A),(B)と<(A)+with+(B)> 만이 아니라 ‘(A)と(B)と’ <(A)+and+(B)>로 볼 수도 있다⁷⁾. 후자의 경우가 小学館本⁸⁾으로 ‘長皇子(ながのみこ)と志貴皇子(しきのみこ)と、佐紀宮(さきのみや)にして俱(とも)に宴(えん)する歌’와 같이 혼독하고 있다. 沢瀉久孝의 注釈(p.458)⁹⁾나 土屋文明의 私注(p.196)¹⁰⁾ 그리고 鶴久의 万葉集(p.61)¹¹⁾는 모두 한문혼독법에 의하면 ‘AとBと’의 Bとの との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즉

3) 본고에서는 万葉集에 사용된 与와 及의 총 횟수는 제시하였지만,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요 이외의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4) 前置詞와 後置詞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介詞의 의미이다. (이하 개사로 칭하기로 한다)

5) 連詞는 接統詞의 의미이다. (이하 연사로 칭하기로 한다)

6) 高木市之助外(1957~1962) 『日本古典文学大系 万葉集』 岩波書店 (이하 大系本으로 칭하기로 한다)

7) 이하 기술 편의상 (A),(B)とは (A)+with+(B)로, (A)と(B)とは (A)+and+(B)로 나타내기로 한다.

8) 小島憲之外(1994~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 小学館 (이하 小学館本으로 칭하기로 한다)

9) 沢瀉久孝(1990) 『万葉集注釈』 中央公論社 (이하 注釈으로 칭하기로 한다)

10) 土屋文明(1956) 『万葉集私注』 筑摩書房 (이하 私注로 칭하기로 한다)

小学館本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¹²⁾. 그런데 ①을 개사로 볼 것인지 연사로 볼 것인지를 문맥에 의해 규정하는 것도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문법구조에 의해 보다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안희정(2004:178-179)에서 거의 유사한 문형이라 할지라도,

- ④武内宿禰与甘美内宿禰、出于磯城川湄。(卷10 应神紀)
- ⑤武内宿禰与甘美内宿禰、共出于磯城川湄。(卷10 应神紀)

와 같이 부사 共의 유무에 의해 개사와 연사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①은 부사 ‘俱’의 존재로 인하여 ‘부사 유형’에 속하는 개사로 쓰였으므로 大系本의 혼독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②는 ‘紅顔(A)は三従(B)と長に逝き、素質(A)は四徳(B)と永に滅ぶ(大系本)’, ‘紅顔(A)は三従(B)と長く逝き、素質(A)は四徳(B)と永く滅びぬ(小学館本)’, ‘紅顔(A)三従(B)と共に長く逝き、素質(A)四徳(B)と共に永く滅ぶ(注釈)’, ‘紅顔(A)三従(B)ト共ニ長ク逝キ、素質(A)四徳(B)ト与ニ永滅ブ(私注)’의 의미로 ‘紅顔’은 ‘素質’과 대구(对句) 관계에 있다. 그리고 ‘三従’도 ‘四徳’과 대구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共:与, 長:永, 逝:滅’도 대구관계를 이루는 문장이다. 만일 (A)와 (B)를 연결하는 ‘共’, ‘与’가 연사로 (A)+and+(B)의 구조라면 ‘紅顔(A)と三従(B)は長に逝き、素質(A)と四徳(B)は永に滅ぶ’의 의미가 되어 각각 ‘紅顔+三従’, ‘素質+四徳’이 주어 성분이 되어 문맥이 달라지지만, 문맥만으로 본다면 개사이든 연사이든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与와 대구를 이루는 共의 용법을 보면,

辛弃疾《贺新郎·别茂嘉十二弟》词:“谁共我,醉明月?”(古代汉语词典 p.476)

와 같이 부사가 아닌 개사 즉 ‘同’이나 ‘跟’의 용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与’ 또한 개사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개사의 의미로 보고 있는 주석서의 한문혼독은 모두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③柿本朝臣人麻呂妻依羅娘子与人麻呂相別歌一首 (卷2-140 題詞)

주석서 모두 ③은 ‘柿本朝臣人麻呂の妻依羅娘子、人麻呂と相別るる歌一首’의 의미로 ‘(A)+与+(B)+副詞+動詞’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뒤의 부사 相의 존

11) 鶴久、森山隆編(1993)『万葉集』桜楓社

12) 与가 ‘AとB’의 ‘A’에 해당하는지 ‘B’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재로 인하여 부사의 유형으로 与는 개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1회는 山上憶良의 悲歎俗道仮合即離易去難留詩에 보인다.

- ④…俗道變化猶擊目 人事經紀如申臂 空与浮雲行大虚 心力共尽無所寄
(俗道の変化は猶し目を撃つが如く、人事の經紀は臂を申ふるが如し。空しく浮雲と大虚を行き、心力共に尽きて寄る所なし。)

大系本에는 ‘空しく浮雲と大虚を行き’로 읽어 空이 부사로 동사 行을 수식하고 생략된 일반 주어가 ‘浮雲とともに大虚を行き’로 파악하여 개사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注釈이나 私注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小学館本(p.89)은 ‘空しきこと浮雲と大虚を行き(空しさは浮雲と共に大虚を行くようで)’로 읽어 空이 추상적인 의미로 주어라 되어 浮雲과 함께 창공을 떠돈다는 의미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개사¹³⁾로 보고 있지만, 주어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사의 예는 이와 같이 4예가 전부이다.

이상과 같이 ①의 경우의 혼독법은 ‘부사유형’에 의해 개사로써 혼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②의 경우는 개사로 혼독하는 주석서와 부사로 혼독하는 주석서가 나뉘어 있는데, 이 또한 개사로써 혼독을 해야 할 것이다.

3.2 연사

연사의 용법으로 볼 수 있는 예는 6회가 보이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⑤大伴宿祢家持与交遊別歌三首(卷4-680 題詞)

⑤는 ‘大伴宿祢家持、交遊と別る歌三首’와 같이 혼독하고 있다. ⑤는 ‘(A)+与+(B)+動詞’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개사로도 연사로도 볼 수 있는 예인데, 우선 ③과 비교한다면 개사의 쓰임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⑤에 대한 小学館本の 頭註(p.342) 설명의 해당 부분을 보면, “「交遊」は「朋友」。家持が同性の友人から冷たい態度を示されて送った歌であろう。原本の「与」はAとBのように並置を示す助字。”라고 기술하여 연사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小学館本の 한문 혼독은 개사로 취급하

13) Teruo Suga(1991) 『THE MAN'YO-SHU』 (PART Vol.1~Vol.7 p.349)을 보면 “Everyone of humans floats in the vacant air Quite in vain with playing clouds Until his power and spirit are lost for ever, And then he finds no place for rest.”으로 ‘with’의 의미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 개사의 기능으로 쓰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고 있다. 小学館本の 해당 두주의 설명을 계속 보면 “しかし動詞ワカルは一般にヲ格を受ける。……。…ト別ルという例は140の題詞にも見えたが、これらの「与」の字の使用も違例。和習漢文ゆえであろう。”와 같이 개사로 취급한 与의 사용은 ‘和習漢文’으로 정통한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 가요의 예에서

…白妙之 手本矣別 丹杵火爾之 家從裳出而 緑児乃 哭乎毛置而 朝霧
髣髴爲乍 山代乃 相樂山乃 山際 往過奴礼婆… (卷3-481)
(…白栲の 手本を別れ にきびにし 家ゆも出でて みどり子の 泣くをも置きて 朝霧
のおほになりつつ 山背の 相樂山の 山の際に 行き過ぎぬれば…)

‘別る’가 취하는 格의 표기로 음차자 ‘矣(ヲ)’의 사용을 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卷4-645 가요의 예에서

白細乃 袖可別 日乎近見 心爾咽飯 哭耳四所泣 (白栲の 袖別るべき 日を近み
心にむせひ 音のみし泣かゆ)

‘袖(ヲ)別る’의 분석에 의하여도 卜格이 아니라 ヲ格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別’의 용법과 관련된 분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別’은 기본적으로 離別을 의미할 때 타동사의 경우 ‘A+別+B’의 구문을 취하여 ‘A가B를別る’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예를 보면

㉔摯瞻曾作四郡太守，大將軍戶曹參軍，復出作內史，年始二十九。嘗別王敦，敦謂
瞻曰：「卿年未三十，已爲萬石，亦太蚤！」(世說新語 言語第二)

와 같다. 그런데 같은 『世說新語』¹⁴⁾의 또 다른 예문을 보면

㉕謝太傅語王右軍曰：「中年傷於哀樂，與親友別，輒作數日惡。」(世說新語 言語第二)

14) 陈昌来(2004:263) “《世说新语》是中古汉语的重要文献。《世说新语》中的介词有“与、於、以、为、在、于、自、从、因、及、被、当、向、由、箸(著、着)、用、比、对、诸、乎”等。跟古代汉语介词比较，《世说新语》的介词有一些新的发展，一是新出现了用于动词后的介词“箸(著、着)”和用于动词前的介词“对”，二是出现了“於……上/下/中”、“在……上/下/中/后”、“于……下”等用法。”의 설명과 같이 世說新語는 중고시대 중국어의 중요한 문헌으로써 고대 중국어에서 근대 중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이 뚜렷하고, 중국고대 문헌으로서는 간행시기가 5세기 전반으로 비교적 万葉集시대가 근접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 ㉔王長史與劉眞長別後相見，王謂劉曰：「卿更長進。」答曰：「此若天之自高耳。」(世說新語 言語第二)
- ㉕支道林初從東出，住東安寺中。王長史宿構精理，并撰其才藻，往與支語，不大當對；王敍致作數百語，自謂是名理奇藻。支徐徐謂曰：「身與君別多年，君義言了不長進。」(世說新語 文學第四)
- ㉖周叔治作晉陵太守，周侯·仲智往別；叔治以將別，涕泗不止。仲智恚之曰：「斯人乃婦女！與人別，唯啼泣。」便舍去。(世說新語 方正第五)

와 같이 ‘A+与+B+別’의 구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小学館本の 입장에서 보면 ‘A, Bと別る’와 같이 분석함으로 해서 卜格을 거론하여 違例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卜格이라 할지라도 ‘別る’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A+B’의 卜格으로써 연사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의 ‘別’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小学館本の 주장과 필자의 주장이 다른 점은 小学館本은 与가 잘못 쓰인 것(違例) 즉 和習漢文으로 쓰인 것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잘못 쓰인 것이 아니라 연사의 용법으로는 바르게 쓰인 것이므로 小学館本을 포함한 주석서들의 혼동처럼 개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연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주석서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문의 수용과정에서 생긴 일본어적인 용법의 추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예문의 경우는 연사로 보아야 할 것을 개사로 분석함으로 인해 생긴 오류로써 일본어적인 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㉗中臣朝臣宅守与狭野弟上娘子贈答歌(卷15-3723 題詞)
- ㉘右一首歌古事記与類聚歌林所說不同 歌主亦異焉(卷2-90 左注)

㉗은 ‘中臣朝臣宅守(A)+and+狭野弟上娘子(B)’의 구조 즉 ‘人名:人名’의 병렬이며, ㉘은 ‘古事記(A)+and+類聚歌林(B)’도 ‘書名:書名’의 병렬 구조로 ‘(A)+and+(B)’가 주어이다. 연사의 용례는 題詞에 2회, 左注에 3회가 보였는데, 총 6회 중 ㉗과 같이 人名이 3회¹⁵⁾, ㉘과 같이 書名이 1회, 그리고 一般名詞가 1회¹⁶⁾ 쓰였다.

4회가 쓰인 개사가 부사의 존재, 대구관계, 문맥 등으로 쓰인 용법과 비교하면, 6회가 쓰인 연사의 용법은 기본 유형인 ‘(A)+and+(B)’의 구조로, 모두 單

15) 제시된 예 이외에 ‘石川内命婦:安陪朝臣虫滿之母安曇外命婦’(卷4-667), ‘大舍人巨勢朝臣豊人:巨勢斐太朝臣’(卷16-3845)가 있다.

16) ‘壯士:美女’(卷16-3803)

項17)으로 쓰여 파악이 매우 용이한 점, 그리고 작가도 개사에서 柿本人麻呂, 大伴家持, 山上憶良가 보인 반면, 연사에서는 万葉集의 주요 작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与가 개사(4회)보다 연사(6회)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은 日本書紀(안희정 2004:209)의 분석과 같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점은 고대 중국 문헌에서 与가 연사보다 개사로 더 많이 쓰인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한편 한국자료¹⁸⁾와 비교해 보면,

㉠法送□人與上□□□□□□□□□□此以□□看其身受討(창녕 진흥왕 탁경비)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고구려 광개토왕릉비)

㉢土地疆時山林□□□□□□□□也大等與軍主幢主道使與外村主審(창녕 진흥왕 탁경비)

㉠와 같이 글자 판독의 어려움 때문에 개사인지 연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1예를 제외하면 ㉡와 같이 개사로 3회 그리고 ㉢와 같이 연사로 4회가 나타난다. 특히 ㉢가 單項이 아니라 ‘多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及의 용법(及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어적인 용법으로 추정된다. 문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지만, 순수한문체라고 한다면, ‘土地疆時山林□□□□□□□□也大等與軍主. 幢主, 道使與(>及)外村主審.’와 같은 문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맥에 관계없이 두 번의 与가 쓰인 전후의 명사 나열을 보면 분명한 것은 적어도 두번째의 与는 及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금석문에서 개사:연사의 비율은 3:4로 연사의 비중이 다소 높은 점은 삼국사기와는 정반대로 万葉集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와 같이 중국문장에 충실한 표기와 달리 중국문장으로부터 일정부분 자유로운 표기가 가능했던 금석문의 한문수용과정에서 생긴 한국어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17) 与의 單項용법에 대하여는 安熙貞(2004:186) 『古代日本語の用字法研究』 참조
 “...「与」の前後は一つの項が来るに反して、「及」の前後には……のように二つ以上の項が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18) 삼국사기와의 비교 연구는 안희정(2004:171-20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금석문을 중심으로 万葉集와 비교하여 与와 及의 양국의 수용 실태에 대한一端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가의 경우는 与는 해당례가 없고 及에는 존재하지만 가요만을 다룰 다음 논문으로 미루기로 한다.

3.3 동사와 경어성

동사로 총 12회가 쓰였는데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⑧大伴田村大嬢与妹坂上大嬢歌一首(卷8-1506 題詞)
 ⑨…於時娘子之意欲親令知 因作歌詠送与其夫…(卷16-3803 題詞)
 ⑩…因此娘子裁作斯歌贈与其夫也(卷16-3806 左注)

⑧은 ‘大伴田村大嬢の妹坂上大嬢に与ふる歌’의 의미로 ‘与’가 동사 ‘あたふ’로 쓰인 경우이다. ⑨와 ⑩은 각각 ‘因りて歌詠を作り、其の夫に送り与へき’, ‘これに因りて娘子この歌を裁作りて其の夫に贈り与へたりといへり’의 의미로 ‘送与’와 ‘贈与’ 즉 복합동사로 쓰인 경우로 동사 ‘おくりあたふ’로 쓰였다. 이와 같은 복합동사로 총 3회¹⁹⁾가 쓰였고 나머지 9회는 단독으로 동사로 쓰였다²⁰⁾. 그런데 与의 동사 용법은 12예 모두 ‘주다’에 해당하는 ‘あたふ’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경어성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있다. 즉 선행연구는 与를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다’는 의미로 파악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대 중국어의 与에 그러한 용법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어 수용 과정에서 생긴 일본어적 의미의 추가로 일본어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万葉集에서 동사로 쓰인 与는 上位자가 下位자에게 ‘주다(与ふ)’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卷6-979 題詞의 与에 대해 頭註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与」は、上位者が下位者に物を贈ることを表す字。家持は受ける側で、五七九題詞でもこの字を用いている。(小学館本：139)

題詞는 (<大伴坂上郎女:A>与<姪家持:B>従佐保還帰西宅)<歌一首:C> 즉, (A+

19) 나머지 1예는 幸于吉野宮時弓削皇子贈与額田王歌一首(卷2-111)와 같다.

20) 卷2-130 長皇子与皇弟御歌一首

卷3-385 右一首或云 吉野人味稻与柘枝仙媛歌也。但見柘枝伝無有此歌

卷4-579 余明軍与大伴宿祢家持歌二首

卷6-979 大伴坂上郎女与姪家持従佐保還帰西宅歌一首

卷8-1449 大伴田村家之大嬢与妹坂上大嬢歌一首

卷8-1506 大伴田村大嬢与妹坂上大嬢歌一首

卷8-1622 大伴田村大嬢与妹坂上大嬢歌二首

卷8-1662 大伴田村大嬢与妹坂上大嬢歌一首

卷9-1782 与妻歌一首

与+B)+C의 구조로 A가 상위자, B가 하위자로 (A+与+B)가 C를 수식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의미 용법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㉑의 与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与」は上位者が下位者に物を授ける義の字。この字を使用することから見て、作者の女より相手の男の身分が低かったと考えられる。(小学館本：99-100)

그런데 卷4-579 題詞를 보면 (<余明軍:A>与<大伴宿祢家持:B><歌二首:C>와 같이 (A+与+B)+C의 구조로 형식면에서는 동일한데, 내용면에서 보면 A가 하위자(余明軍), B가 상위자(大伴家持)로 되어 있어 앞서 설명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小学館本(p.312)은 “また題詞の「与」は一般に上位者が下位の者に贈ることを表すが、ここは家持への明軍の私的な敬愛の情を込めた用法で矛盾しな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私注(p.114)에서는 “「与」とあるのは家持の手記に本づくのであろうか。”와 같은 기술이 보이는데, 이것은 하위자인 余明軍이 상위자인 家持에게 与자를 사용한 것을 家持가 스스로를 낮추어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다²¹⁾.

그렇다면 고대중국어의 동사 与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㉒ 公於是獨往食，輒含飯箸兩頰邊，還吐與二兒。後竝得存，同過江。(世說新語 德行第一)
- ㉓ 桓先曾以一羔裘與企生母胡；胡時在豫章，企生問至，即日焚裘。(世說新語 德行第一)
- ㉔ 殷徐語左右：「取手巾與謝郎拭面。」(世說新語 文學第四)
- ㉕ 法暢曰：「廉者不求，貪者不與，故得在耳。」(世說新語 言語第二)
- ㉖ 昔者智伯瑤率趙·韓·魏而伐范·中行，滅之。反歸，休兵數年。因令人請地於韓。韓康子欲勿與，段規諫曰：“不可不與也。夫知伯之爲人也，好利而驚復。彼來請

21) 이와 관련하여 卷4-723의 題詞를 보면, ‘大伴坂上郎女從跡見庄賜留宅女子大嬢歌一首 并短歌’와 같이 (A+賜+B)+C의 구조가 보이고 ‘与’와 동일한 용법으로 賜가 사용되고 있다. 与와 동일하게 상위자에서 하위자로 이동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賜자에 대한 기술이 보이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賜」は目上の者が目下の者に与えることを表す字で、皇族から貴族や官人庶民に物が与えられる以外に用いることが少ない。庶民相互の間では身分に上下があっても一部に「与」の字を用いる以外は大抵「贈」の字が使われる。ただし坂上郎女から娘の大嬢へは「賜」が用いられる(4221左注)。724の左注に、大嬢から母へ歌を贈ったのを「進る」といい、またその返報を「報へ賜ふ」というのも同様。恐らくこの記述は、両人の関係を私的に上下の形で捉える立場にあった家持が行ったものであろう。(小学館本：354)

4221의 頭註：“賜”の字は、万葉集では皇族から庶民に与える以外にはほとんど用いない。しかし、723題詞など、坂上郎女が娘の坂上大嬢に与える場合には、この「賜」の字を用いている。→4165題詞(尊母)。(小学館本：332)

724의 頭註：これからこの前に大嬢からの「贈歌」があったのだが、編纂段階で家持がそれを削除したらしいことが知られる。(小学館本：355)

地而弗與，則移兵於韓必矣。(韓非子 十過第十)

㉔는 郗公이 입안 가득히 먹을 것을 담아 가져와서 토해 두 자식에게 주었다 즉 먹었다는 의미이므로 상위자인 아버지 郗公이 하위자인 자식에게 주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은 桓南郡(桓玄)이 포로로 잡힌 諮議參軍 羅企生의 어머니인 胡氏에게 어린양 가죽 옷을 주었으나 자식이 죽게 되자 바로 그날 가죽옷을 태워버렸다는 내용으로 상위자인 桓南郡이 하위자인 羅企生의 어머니에게 주다는 의미로, 그리고 ㉕은 殷浩가 謝鎮西(謝尚)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자 감동을 받아 땀이 얼굴을 적시자 옆에 있던 사람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라는 내용인데 謝鎮西보다 3살 위인 상위자 殷浩가 주어가 되어 與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3예를 보면 萬葉集에서 與가 경어성으로 쓰인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고대중국어에서도 경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㉖의 예를 보면, 청렴한 사람은 요구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경우에는 상위자와 하위자에 대한 개념 없이, 즉 경어성이 없이 단지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㉗의 경우는 智伯瑤가 韓의 康子에게 韓나라의 땅을 요구하자, 韓康子가 주지 않으려 하자 段規가 간언하여 결국 땅의 일부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때 智伯瑤와 康子は 대등한 관계로 쓰이고 있다. 오히려 힘의 우위는 智伯瑤에게 있으므로 康子를 하위자로 볼 수도 있는 곳에 與가 쓰인 것을 보면 경어성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중국어 與는 賜와는 달리 경어성과 관련있는 字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萬葉集에서는 경어성을 살려 표기한 것으로 보아 與의 경어성은 일본어 수용과정에서 생긴 일본어적인 용법 내지 의미의 추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자료에서 與가 상위자에서 하위자로 사용된 예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자료의 성격상 상위자가 주로 하위자에게 주는 예가 많아서이지 與에 상하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萬葉集과 같이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본어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상대문헌 중 자료의 성격이 다른 萬葉集만의 특징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일본어적인 용법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금석문에서는 동사로 ‘□者更赤城烟去使之後者公□□□□□□□□異茶耶國法中分與雖然(단양 적성비)’와 같이 ‘分與’로 1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音借字로 6회가 쓰였는데, ‘伊與’(卷12-3098)와 같이 지명 표기로 1회, ‘よ’와 같이 終助詞 표기로 1회, ‘寄る’와 같이 동사 표기로 1회, ‘大伴部麻与佐(おおともべのまよさ)’와 같이 인명 표기로 3회가 쓰였는데 모두 左注에만 나타났다²²⁾.

22) 右一首 平群文屋朝臣益人伝云 昔多紀皇女窃嫁高安王被嘖之時 御作此歌 但高安王左降任之伊与国守也(지명 卷12-3098) / 或本歌曰 麻可奈思美 奴良久波思家良久 佐奈良久波 伊豆能多可祢能 奈流佐波奈須与 (중조사 卷14-3358) / 或本歌末句曰 波布久受能 比可波与利己祢 思多奈保

한국 금석문에서는 인명표기로 ‘次\喙部與難大舍藥師沙喙部薦兄小□(황초령 진흥왕순수비)/翮人沙喙部爲忠知大舍^占人喙部與難大舍藥師薦支次小舍(마운령 진흥왕순수비)’와 같이 2회, 그리고 관독이 어려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夫^躬道者凝抱有迹之所從□□□□^崑恨路之能與□眞約妙法□坊□□右也念□乎芘易而(斷石山 神仙寺 造像銘記)’의 예가 있다.

4. 及

4.1 개사

‘及’은 총 61회가 보였다. 먼저 개사로 볼 수 있는 예는 万葉集 전체에 걸쳐 1예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于時稻公等、以病既療、發府上京。於是大監大伴宿祢百代·少典山口忌寸若麻呂及卿男家持等、相送駟使、共到夷守駟家、聊飲悲別乃作此歌。(卷4-567 左注)

①은 小学館本과 大系本 모두 ‘また’로 읽어 ABC²³⁾를 AB+and+C의 형식 즉 연사로 보고 있다. 그 밖의 주석서 또한 연사로 파악하고 있는데, 与의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뒤에 오는 ‘相’이 부사로 쓰여지고 있는 만큼 AB+with+C의 형식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徐蕭斧(1981)가 及의 개사로 제시한 “儒者說日, 及工伎之家, 皆以日爲一。(說日)”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皆’의 사용에 의해 及이 개사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左注의 해당 노래인 卷4-566과 卷4-567의 작자 AB는 병문안으로 太宰府에 왔던 右兵庫助大伴宿禰稻公와 治部少丞大伴宿禰胡麻呂가 太宰師 大伴旅人卿의 병이 다 나아 다시 도읍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를 지은 것이고, 旅人卿의 아들인 C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 따라서 전후 문맥에 의해서도 AB가 C를 주도한다는 것은 이 예의 ‘及’이 개사로 쓰였음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及이 万葉集에서 개사 용법으로 쓰인 것은 고대 중국 문헌으로 볼 때 漢나라 이전 시대의 표기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즉

兩漢以下, “与、及”的用法基本上统一于第三类, “及”字不再用作介词, 至少不再用于显然

那保爾(동사 卷14-3364) / 음차자에서 가장 많이 보인 표기이며 모두 防人歌에서 보였다. (丈部与 呂麻呂 인명 卷20/4354, 今奉部与曾布 인명 卷20-4373, 大伴部麻与佐 인명 卷20-4392)

23) A(大監大伴宿祢百代), B(少典山口忌寸若麻呂), C(卿男家持)

是介词的位置。如《史记》中“及”字不可胜数，但遍检五十卷(1-10,61-70,81-90,101-110, 121-130)，显然属于介词的只见两处：[秦本纪]蜀守若伐取巫郡，及江南为黔中郡。[匈奴传]汉乃拜郭昌为拔胡将军，及浞野侯屯朔方以东，备胡。而《论衡》中只有一个疑似的句子：[说日篇]儒者说日，及工伎之家，皆以日为一。(徐萧斧 1981:379)

와 같이 漢나라 이후에는 及은 개사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사로 쓰인 것은

但是秦汉以后的文人惯于仿古，因此“及”字用作介词，在后代(甚至很后)的书面语中还偶或出现，这只能认作古汉语的残留，如：[谢元晖秋夜讲解诗]六龙且无借，三相宁久长？何时接灵应，及子同舟航。[又新治北窗如何从事诗]自来迓弦望，及君临箕颖清文蔚且咏，微言超已领。(徐萧斧 1981:379)

와 같이 의고적인 표현으로써 漢나라 이전 시대의 표현의 잔영일 뿐이다. 따라서 万葉集 당시의 중국 문헌의 표현을 수용했다기 보다 漢나라 이전 시대의 표현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4.2 연사

연사의 及은 ‘与’의 연사와 마찬가지로 대개 A+and+B의 형식과 의미를 가진다. 연사의 용법으로 총 10예가 보이는데, 題詞에 4예, 左注에 5예, 그리고 沈痾自哀文에 1예가 보인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②紀曰、天皇七年丁卯、夏五月五日、縱獵於蒲生野。于時大皇弟・諸王・内臣及群臣、皆悉從焉。(卷1-21 左注)
- ③遣新羅使人等、悲別贈答及海路慟情陳思。(卷15-3578 題詞)
- ④其事既畢、馭使及府諸卿大夫等、共登記夷城而望遊之日乃作此歌。(卷8-1472 左注)
- ⑤謂常執弓箭不避六齋 所值禽獸不論、大・小・孕及不孕、並皆殺食 以此為業者也。(沈痾自哀文)

②의 해당 부분은 小学館本에는 ‘…時に、大皇弟・諸王・内臣また群臣、皆悉(ことごと)に従ふ’といふ.’와 같이 연사 ‘また(および)’로 혼동되었고, 大系本에서도 ‘…時に大皇弟(ひつぎのみこ)・諸王(おほきみたち)・内臣(うちつまへつきみ)と群臣(まへつきみたち)、悉皆(ことごと)に従(おほみとも)そといへり.’와 같이 연사 ‘と’로 혼동되었다. 注釈・私注・鶴久도 모두

24) 한국 금석문에는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북한산 진흥왕순수비)’와 같이 개사로는 1예가 보인다.

연사로 취급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하겠다.

동일한 접속을 나타내는 연사의 용법이라 하더라도 ‘与’의 경우는 명사와 명사구까지 올 수 있는 반면, ‘及’의 경우는 형용사, 동사, 그리고 동사구, 문까지 올 수 있어 ‘与’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다양한 문의 성분²⁵⁾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③은 ‘別(わかれ)を悲しびて贈答し、また海路にして情(こころ)を働(いた)み思を陳(の)ぶ。(大系本)’의 의미로 바로 与에는 없는 ‘動詞句+及+動詞句’로 구성된 연사의 용법으로 쓰였다. 이 용법에 해당하는 예는 2예가 더 있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為向京之時、見貴人及相美人、飲宴之日述懷儲作歌二首(卷18-4120 題詞)

⑤老身重病經年、辛苦及思兒等歌、七首(卷5-897 題詞)

④는 ‘京に向はむ時に、貴人(うまひと)を見、及(また)美人に相ひて、飲宴せむ日の為に…(大系本)’의 의미 즉 ‘貴人を見、また美人に相ひて’의 의미로 동사구를 이끌고 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명사+及+相+명사’의 형식, 즉 相을 부사로 보아 及의 개사 용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문맥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及의 전후에 위치한 ‘동사+명사’의 동사구를 이끌고 있는 문장 성분이므로 연사 及의 독자적인 용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⑤는 ‘老いたる身の重き病に年を経て辛苦(たしな)み、及(また)児等を思ふ歌七首(大系本)’의 의미로 及의 전후에 문장과 동사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명사 歌를 수식하는 구조로 연사 용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④는 ‘A(馭使)+及+諸+B(卿大夫等)’의 유형으로 ‘馭使と府の諸々の卿大夫等’의 의미로 ‘A+及+諸+B’의 형식을 취하는 ‘及’의 독자적인 용법 중 하나인 ‘未尽’²⁶⁾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예를 ‘A+及+B+共+動詞’의 형식으로 보고 ‘부사에 의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개사의 용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その事既に畢(をは)りて

25) 周生亚(1989):第一, 连词“与”主要是连接名词或名词性词组, 而连词“及”除上述用法外, 还可以连接动词性词组或主谓词组。如:

(1)父兄大臣上请爵禄于上, 而下卖之以收财利及以树私党。(韩非子·八奸)
 (2)于是尽斩旌旗及珍宝埋地中, 陵叹曰:“复得数十天, 足以脱矣。”(汉书·李陵传)
 “及”字连接主谓词组主要出现在汉代和汉代以后。如:
 (3)如意立为赵王后, 几代太子者数矣, 赖大臣争之及留侯策, 太子得毋废。(史记·吕太后本纪)
 (4)王欲诛相, 为其奉先王功大及宾客辩士为游说者众, 王不忍致法。(史记·吕不韦列传)
 26) 周生亚(1989):二是表未尽。所谓表未尽, 就是指“及”后的内容往往带有举例性质, 而不是把所有的并列项全都列出来。表未尽的“及”字, 在多个并列项中的位置基本是偏后的。如:
 (3)寇近, 亟收诸杂乡金器, 若铜, 铁及他可以左守事者。(墨子·杂守)
 (4)寡因分遣副使使大宛, 康居, 大月氏, 大夏, 安息, 身毒, 于寘, 扞鞞及诸旁国。(史记·大宛列传)

馭使と府の諸卿大夫等(まへつきみたち)と、共に記夷(き)の城(き)に登りて、望遊せし日に、この歌を作れるなり。(大系本)의 의미로, ‘馭使及府諸卿大夫等’ 즉 ‘A+及+諸+B’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작자+A+及+諸+B’로 작자 ‘石上堅魚(いそのかみのかつを)’는 ‘馭使 및(及) 諸卿大夫等’와 함께 城에 오른다는 문맥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사로 본다면 ‘馭使’가 ‘府諸卿大夫等’과(及) 城에 오른다는 의미로 ‘馭使’가 주어가 되어 문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未末 용법은 2예 더 존재하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㉔ 右神龜四年正月 數王子及諸臣子等 集於春日野而作打毬之樂。其日忽天陰 雨雷電。(卷6-949 左注)
- ㉕ 於時左大臣橋卿率、大納言藤原豐成朝臣及諸王·諸臣等、參入太上天皇御在所 中宮西院 供奉掃雪。(卷17-3922 題詞)

㉔는 ‘右は、神龜四年正月、數王子(おほきみたち)また諸臣子等(おみたち)、春日野に集(つど)ひて、打毬(まりうち)の樂(たのしび)を作(な)す。(大系本)’의 의미로 ‘A(數王子)+及+諸+B(臣子等)’의 형식을, ㉕는 ‘時に、左大臣橋卿、大納言藤原豐成朝臣と諸王諸臣とを率(み)て、太上天皇の御在所(みまじどころ) 中宮西院に參入(まゐ)りて、掃雪(ゆきはき)に供(つか)へ奉(まつ)りき。(大系本)’의 의미로 ‘A(大納言藤原豐成朝臣)+及+諸+B(王, 臣等)’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未末의 형식 즉 ‘A+及+他+B’ 혹은 ‘A+及+諸+B’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㉕는 ‘謂ふところは、常に弓箭を執り六斎を避けず、値(あ)ふ所の禽獸、大きなると小(すこ)しきなると、孕めると孕まぬとを論ぜずして並皆(ともに)殺し食ひ、此を以ちて業とする者(ひと)をいふ。(大系本)’의 의미로, ‘及’이 동사 사이에 쓰여(보다 더 정확하게는 동명사이다) 及이 담당하는 독자적인 용법 중 하나인 ‘다양한 문장성분’에 해당한다. 또한 ‘殺食’의 대상이 ‘그 어떠한 것이라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大, 小, 孕, 不孕’을 나열한 것으로 보아 多項 용법²⁷⁾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나머지 2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㉖ 右案 年紀·并、所処及娘子屍作歌人名、已見上也 但歌辞相違是非難別 因以累載於茲次焉(卷3-437 左注)
- ㉗ 此時、宮中無侍從及侍衛。勅行刑罰皆散禁於授刀寮而妄不得出道路。于時悞憤即作斯歌(卷6-949 左注)

27) 及의 多項 용법에 대하여는 安熙貞(2004:205) 『古代日本語の用字法研究』 참조
多項의 예:

㉔ 於是副賜其遠岐斯此三字以音 八尺勾璽、鏡、及草那芸劍、亦常世思金神、手力男神、天石門別神而詔者、(古事記 上卷)

㉕ 然而還上之時、山神、河神、及穴戸神、皆言向和而參上。(古事記 中卷)

⑥은 ‘右は、案(かむが)ふるに、年紀并に所處また娘子の屍と歌を作る人の名と、已(すでに)上に見えたり。(大系本)’의 의미로 ‘A+并+B(명사구)+及+C(명사구)’의 형식으로 ‘并’과 ‘及’이 동일한 역할로 쓰인 연사 용법이다. 이 예도 ⑤와 마찬가지로 ‘及’의 전후에 2개 이상의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 多項 용법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⑦은 ‘この時に宮の中に侍従と侍衛となし。勅して刑罰に行ひ、皆授刀寮に散禁して妄(みだ)りて道路に出づることを得ずあらむ。(大系本)’의 의미로 가장 기본 형식인 ‘A(侍従)+及(and)+B(侍衛)’로 쓰인 연사의 용법이다.

한편 한국 금석문은 万葉集와 마찬가지로 ‘單項+單項’(2회), ‘多項+多項’(2회), 그리고 ‘A+及+諸+B’(1회)와 같이 다양한 용법이 확인된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㉔主聖大王炤亦爲十方檀越及道場法界(청주 雲泉洞寺蹟碑)/己丑年二月十五日此 □七世父母及□□□阿彌陀佛諸佛菩薩像□□(己丑銘 아미타불석상)
- ㉕全氏三□□等□五十人知識共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發願敬造寺(癸酉銘 아미타삼존四面石像)/石記□□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造之(癸酉銘 삼존천불비상)
- ㉖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香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癸酉銘 삼존천불비상)

특히 ㉖의 경우에는 ‘계유년 4월 15일에 香徒가 석가 및 여러 불보살의 상을 만들었다’의 뜻인데, 동사 ‘造’가 목적어인 ‘釋迦’이하의 앞이 아니라 뒤에 쓰여 한국어의 어순으로 사용되었다. 즉 誓記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4.3 동사

동사의 용례는 모두 단독으로 쓰여 총 7예²⁸⁾가 보이는데 가장 일반적인 ‘およぶ’의 훈독으로 4예, 그리고 ‘しく’ 훈독으로 2예가 쓰였다. 그리고 나머지 1예가 ‘いたる’로 훈독하고 있는데 해당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㉘盲鬲也心下爲膏。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山上憶良 沈痾自哀文)
- ㉙天地之大德曰生。故死人不及生鼠。雖爲王侯 一日絶氣積金如山 誰爲富哉。(山上

28) 나머지 およぶ(3예)와 しく(1예)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およぶ: 易集難排八大辛苦 難遂易尽百年賞樂 古人所歎今亦及之。(卷5-804 題詞) / 追望件医 非敢所及若。逢聖医神藥者 仰願割剝五藏抄探百病 尋達膏肓之患處 (沈痾自哀文) / 右内匠大属 按作村主益人聊設飲饌、以饗長官佐爲王、未及日斜王既還歸。於時益人怜惜不厭之歸仍作此歌(卷6-1004 左注)

しく: 且作席上之主夕爲泉下之客。白馬走來 黄泉何及。隴上青松空懸信劍 (悲歎俗道佞合即離易去難留詩一首)

憶良 沈痾自哀文)

⑩右廿日雖未及時依興預作也。(卷19-4168 左注)

⑧은 ‘盲は兩なり、心の下を膏と為す。攻むれども可からず、達も及ばず、藥も至らず’로 혼독되어 단독으로 동사 ‘およぶ’의 의미로 쓰였고, ⑨는 ‘天地の大徳を生と曰ふ。故に死にたる人は生ける鼠に及かず’로 혼독되어 동사 ‘しく’의 의미로 쓰인 용법이다. ⑩은 ‘右は、二十日、時に及らずといへども、興に依りかねて作れり’의 의미로 ‘時にいたる’ 즉 ‘시간의 도달’을 나타내는 ‘いたる’의 표기로 ‘及’이 쓰인 경우이다. 그런데 ⑩의 及은 ‘いたる’로 혼독하는 것 보다도 ‘およぶ’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문 혼독에서 ‘およぶ’는 及에 대한 혼독법이고, ‘いたる’는 至 또는 到에 대한 혼독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いたる’의 의미로는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至’ 혹은 ‘到’字가 담당하고 있다.

⑥斯天下之民至焉。(ここに天下の民至らん：孟子 梁上)

①民到于今受其賜。(民今に到るまでに、その賜を受く：論語 憲文)

①雖隆薛之城到於天。(薛の城を隆くして天に到るといへども：戰國策 齊)

이에 반해서 およぶ의 경우는 及이 담당하는데 아래에 해당 예문과 혼독²⁹⁾을 제시하면,

⑥及父卒 叔齊讓伯夷。(父卒するに及びて、叔齊、伯夷に讓らんとす：史記 伯夷)

①子貢曰：「我不欲人之加諸我也，吾亦欲無加諸人。」子曰：「賜也，非爾所及也。」(およぶところにあらざるなり。：論語)

⑩子曰：「甯武子，邦有道，則知；邦無道，則愚。其知可及也；其愚不可及也。」(その知にはおよぶべきなり。その愚にはおよぶべからざるなり。：論語)

⑩肉雖多，不使勝食氣；唯酒無量，不及亂。(亂に及ばず。：論語)

⑩王戎云：「太保居在正始中，不在能言之流；及與之言，理致清遠，將無以德掩其言！」(これと言ふにおよんでは：世說新語)

⑩明蚤往，及未寤，便呼：「子慎！子慎！」(未だ寤めざるに及んで：世說新語)

와 같다. 이와 같이 至와 到는 ‘いたる’로, 及은 ‘およぶ’로 혼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29) 한문 혼독은 아래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目加田誠(1979) 『新積漢文大系 世說新語』明治書院

吉田賢抗(1960) 『新積漢文大系 論語』明治書院

전자의 경우는 万葉集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万葉集 가요에서 ‘いたる’의 表記는 총 32예가 보이는데 예를 제시하면,

- ㉔麻等保久能 久毛為爾見由流 伊毛我敝爾 伊都可**伊多良武** 安由壳安我古麻 (ま遠くの雲居に見ゆる妹が家にいつか至らむ歩め我が駒：卷14-3441)
- ㉕遠有而 雲居爾所見 妹家爾 早將**至** 步黒駒 (遠くありて雲居に見ゆる妹が家に早く至らむ歩め黒駒：卷7-1271)
- ㉖…今日今日跡 飛鳥爾**到** 雖置 置勿爾**到** 雖不策 都久怒爾**到**… (…今日今日と 飛鳥に至り 置くとも 置勿に至り つかねども 都久野に至り)… 卷16-3886)

와 같이 ‘いたる’의 表記는 음차자(音仮名) ‘イタラム’ 3예³⁰⁾, ‘イタレバ’ 3예³¹⁾, ‘イタリテ’ 2예³²⁾로 총 8예, 그리고 나머지는 ‘至’ 17예³³⁾, ‘到’ 6예³⁴⁾로 ‘至’字와 ‘到’字에 의존하고 있다³⁵⁾.

30) 卷14-3381伊多良武等曾与, 卷14-3428安礼波伊多良牟, 卷14-3441伊都可伊多良武

31) 卷14-3506許騰伎爾伊多礼婆, 卷17-4011安伎爾伊多礼婆, 卷18-4111冬爾伊多礼婆

32) 卷20-4331波夜久伊多里弓, 卷20-4419都久之爾伊多里弓

33) ‘至’字 17예

- 卷7-1271 遠有而 雲居爾所見 妹家爾 早將**至** 步黒駒
- 卷10-2072 渡守 船度世乎跡 呼音之 不**至**者疑 梶声之不為
- 卷10-2142 左男壯鹿之 妻整登 鳴音之 將**至**極 靡芽子原
- 卷12-2875 天地爾 小不**至** 大夫跡 思之吾耶 雄心毛無寸
- 卷12-2912 人見而 事害日不為 夢爾吾 今夜將**至** 屋戸閑勿勤
- 卷12-2931 念管 座者苦毛 夜干玉之 夜爾**至**者 吾社湯龜
- 卷16-3850 世間之 繁借廬爾 住住而 將**至**国之 多附不知聞
- 卷1-79 ……佐保川爾 伊去**至**而 我宿有……
- 卷6-971 ……賊守 筑紫爾**至** 山乃曾伎 野之衣寸見世常……
- 卷8-1505 霍公鳥 鳴之登時 君之家爾 往跡追者 將**至**鴨
- 卷9-1738 ……道者不去而 不召爾 門**至**奴 指並……
- 卷9-1740 ……加吉結 常代爾**至** 海若 神之宮乃……
- 卷13-3230 ……水蓼 穗積**至** 鳥網張 坂手乎過……
- 卷4-549 天地之 神毛助与 草枕 羈行君之 **至**家左右
- 卷13-3322 門座 郎子內爾 雖**至** 痛之恋者 今還金
- 卷3-257 天降付 天之芳来山 霞立 春爾**至**婆 松風爾 池浪立而。。
- 卷3-420 ……世開乃 悔言者 天雲乃 曾久敝能極 天地乃 **至**流左右二 杖策毛 不衝毛去而……

‘至’字는 訓漢字로써 이미 ‘いたる’로 정착해 있다.

34) ‘到’字 6예

- 卷11-2526 將待爾 **到**者妹之 權跡 咲儀乎 往而早見
- 卷11-2546 不念丹 **到**者妹之 歡三跡 咲牟眉曳 所思鴨
- 卷13-3268 ……真神之原從 思管 還爾之人 家爾**到**伎也
- 卷16-3886 ……命受牟跡 今日今日跡 飛鳥爾**到**
- 卷16-3886 雖置 置勿爾**到**
- 卷16-3886 雖不策 都久怒爾**到** 東 中門由 參納来弓……

35) いたる는 古事記 가요에 1예(許能迦迺夜 伊豆久能迦迺 毛毛豆多布 都奴賀能迦迺 余許佐良布 伊豆

오로지 다음 卷6-979 坂本郎女の 가요의 경우,

①吾背子我 著衣薄 佐保風者 疾莫吹 及家左右

‘我が背子(せこ)が着(け)る衣(きぬ)薄(うす)し佐保風(さへ)はいたくな吹きそ家に至るまで’ 와같이 ‘及’의 표기가 ‘いたる’로 혼독되고 있는데 가요에서 ‘いたる’의 表記字로써 ‘及’이 사용된 것은 위의 1예뿐이다. 한편 万葉集 가요에서는 ‘およぶ’에 해당하는 표기례가 전혀 없다. 따라서 卷6-979의 及을 ‘いたる’로 읽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요에서의 혼독법이며, 가요에서는 ‘およぶ’의 예가 단 한 예도 없는 것으로 보아 ‘いたる의 사용’ 또는 ‘いたる의 혼독’은 詩語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卷19-4168 左注와 같은 한문체에서의 혼독어는 詩語인 ‘いたる’가 아니라 한문체의 혼독어인 ‘およぶ’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문헌의 다른 자료들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한편 한국 금석문의 경우 동사의 예로는 3회 나타나는데

㉔歲使一良葬送之後富及七世子孫番昌仕宦日遷位至侯王(고구려 鎭墓北壁墨書 덕흥리고분목서명)/功德逮及七世父母□□□□□衆生成同□□□□(大和 13년銘 석불상)

㉕及此時如雲猛將仰公龍豹之韜(김인문비)

㉔와 같이 ‘~에 미치다’와 ㉕와 같이 ‘(시간·때)에 이르다’ 즉 시간의 도달로 사용되었다. 그밖에 금석문에서의 及은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총15회가 보이는데 관등명 12회, 관직명 1회 그리고 인명으로 2회가 쓰였다³⁶⁾.

5. 나가는 말

万葉集의 歌謡이의 즉 題詞·左注 등의 漢文体를 대상으로 万葉集에 보이는 「与」와 「及」의 表記字의 용법을 통하여 그 수용과정과 혼독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久迹(伊多流)가 보이며, 日本書紀 가요나 훈주에는 예가 없다.

36) 관등명:及干支(2회·단양 적성비)·及尺干(6회·창녕 진흥왕탁경비)·及干(1회·북한산 진흥왕순수비)·及干(1회·황초령 진흥왕순수비)·及干(1회·마운령 진흥왕순수비)·及[夕食](1회·문무왕릉비); 관직명:及伐斬典(마운령 진흥왕순수비); 인명:及珎夫知(마운령 진흥왕순수비)·安及以(울주 천전리 書石)

- ‘与’는 총28예 보였는데, 개사의 용법으로 4회가 보였다. 주석서에 따라 혼독에 차이를 보여 개사로도 연사로도 볼 수 있는 卷1-84, 卷2-140와 같은 경우, 문맥만이 아닌 문법구조면에서 분석을 통해, ‘부사 유형’에 속하므로 개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大系本の 혼독이 타당하다
- 연사 용법으로는 6회 보이는데, 卷4-680의 경우, 小学館本에서 頭註 설명부분에서는 연사로, 혼독부분에서는 介詞로 보면서 모순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卜格을 취하고 있는 与자의 사용 즉 ‘A+与+B+別’의 与를 ㄱ格을 취하는 동사 別과 결부시켜 違例라고 설명하면서 和習漢文의 영향이므로 「日本語的인 用法」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존의 諸注釈書の 설명에 대해, 고대중국자료에서 [A+与+B+別] 및 [A+別+B]의 유형이 모두 정통한문체에 존재하며, 다만 이 차이는 別의 자동사 타동사의 쓰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別’의 용법과 관련된 분석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卷4-680의 与는 연사의 용법으로 바르게 쓰인 것이라고 하겠다.
- 동사로 총 12회가 쓰였는데 ‘送与’와 ‘贈与’ 즉 복합동사 ‘おくりあたふ’로 쓰인 경우가 3회, 단독동사 ‘あたふ’로 9회가 쓰였다. 与가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다’로 사용되는 일본어에서의 경어성에 대해 중국자료의 해당자의 예를 검토하여 원래 与는 경어성과 큰 관련이 없는 자임을 밝혔으며 따라서 일본어에서의 与의 경어성은 일본어 수용과정에서 생긴 일본어적 의미 추가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한국금석문 자료의 경우는, 글자 판독이 어려운 1예를 제외하고 개사로 3회, 연사로 4회, 동사 ‘分与’가 1회 보였으며 그 밖에 음차자로 6회(지명표기1회, 종조사 표기1회, 동사표기에 1회, 인명표기에 3회)가 보여 万葉集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다.
- ‘及’의 경우는 개사가 오로지 1예에 불과한데 그 이유에 대해 고대 중국 자료에 근거하여 漢나라 이전 시대의 표기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連詞로는 총 10예가 보였는데 개사:연사의 비율이 1:10으로 及이 연사 용법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구별이 까다로운 예는 없었다. 10예는 기본유형인 [A+及(and)+B]로 2회, 及의 독특한 용법인 다양한 문장성분 용법으로 3예, 未 尽 용법으로 3예, 多項 용법으로 2예가 쓰여 及의 주된 용법에 충실하게 쓰였다.
- 동사로는 총 7예가 보여 ‘およぶ’ 혼독으로 4예, ‘しく’ 혼독으로 2예, ‘いたる’ 혼독으로 1예가 쓰였는데 이 중 ‘いたる’로 혼독하고 있는 卷19-4168의 혼독에 대해 고대중국자료와 万葉集 전체에서 ‘いたる’를 검토하여 ‘およぶ’로 再 読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한국금석문 자료의 及은, 연사 용법으로 기본유형 2회, 다항 2회, 미진 1회, 그리고 동사로 3회가 보였는데 万葉集와 동일하게 及의 원래 용법에 충실하게 쓰였다. 그 밖에 관등명 12회, 관직명 1회, 인명 2회의 예가 보여 与와 마찬가지로 万葉集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가요 내에서의 与와 及의 쓰임을 검토하여 한문체와 비한문체의 비교를 통하여 특징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参考文献】

- 김용옥(1992)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서울. p.365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210-216
- 김원중편(1994) 『허사사전』 현암사 서울 pp.116-120, 504-509
- 한국고대사회연구소(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pp.3-35, 72-90, 120-12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pp.33-40, 53-96, 124-147, 150-174, 179-189, 192-197
- 허백(1997) 『중국고대어법』 신아사 서울 pp.289-347
- 홍기문(1995) 『리두연구』 한국문화사 서울 pp.295-313
- 安熙貞(2000) 「「与」と「及」の用字法の比較研究 -『日本書紀』と『三国史記』を中心に-」 福岡大学大学院論集32-2 福岡大学大学院論集刊行委員会 pp.1-17
- 安熙貞(2004) 『古代日本語の用字法研究』 J&C ソウル pp.171-209
- 井手至(1998) 「鶴久著『万葉集訓法の研究』」 『万葉』第167号万葉学会 京都 pp.49-57
- 宇都宮睦男(1987) 「「与」の訓法」 国語国文56-7 京都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研究室 pp.22-40
- 大久保正(1980) 『万葉集の諸相』 明治書院 東京 pp.238-239
- 大島信生(1986) 「万葉集「与」の表記について -助詞トの場合-」 万葉123 万葉学会 京都 pp.12-22
- 大野透(1962) 『万葉仮名の研究』 明治書院 東京 p.301
- 沢瀉久孝(1990) 『万葉集注釈』 中央公論社 東京 p.458
- 亀井孝(1955) 「埋もれた言語と埋もれた訓詁」 『万葉』第17号 万葉学会 pp.1-5
- 古事記学会編(1995) 『古事記の言葉 古事記研究大系10』 高科書店 東京 pp.162-164
- 小島憲之(1994~1996) 『万葉集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小谷博泰(1999) 『木簡と宣命の国語学的研究』 和泉書院 大阪 pp.286-288
- 小林芳規(1959) 「「及」字の訓読」 言語と文芸1-4 国文学言語と文芸の会
- 西条勉(1998) 『古事記の文字法』 笠間書院 東京 pp.186-188
- 志村良治(1977) 「「与」「饋」「給」 -漢語の授与動詞と「給」の来源-」 東北大学文学部研究年報27 東北大学文学部 pp.113-123
- 曾根博隆(1998) 「簡析「給」和「与」的動詞用法」 明治学院論叢606 明治学院大学 pp.1-15
- 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1994) 『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 三省堂 東京 p.27, 801
- 高木市之助外(1957~1962) 『日本古典文学大系 万葉集』 岩波書店

- 土屋文明(1956) 『万葉集私注』 筑摩書房 東京 p.196
鶴久、森山隆編(1993) 『万葉集』 桜楓社
長尾光之(1969) 「「与」と「給」の問題点」 東洋学21 中国文史哲研究会 pp.51-70
永山勇(1963) 『国語意識史の研究 -上古・中古・中世-』 風間書房 pp.115-117
蜂矢宣朗(1962) 「仮名表記と読添へ」 『万葉』 第43号 万葉学会 京都pp.38-53
目加田誠(1975) 『新釈漢文大系76 世説新語上』 明治書院 p.135, 158, 282
柳沢朗(1991) 「「与」と「与具」 -人麻呂歌集コス表記の可能性-」 日本文学40-2 日本文学協会 pp.44-53
山口佳紀(1995) 『古事記の表記と訓読』 有精堂 東京 pp.370-372
吉田賢抗(1960) 『新釈漢文大系1 論語』 明治書院, pp.152-154
- Teruo Suga(1991) 『THE MAN'YO-SHU』 Kanda Educational Foundation Tokyo p.349
- 陈昌来(2004) 『介词与介引功能』 安徽教育出版社 pp.258-266
陈复华(1999) 『古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出版社 北京 p.476
郭锡良主编(1998) 『古汉语语法论集』 语文出版社出版 pp.130-144
徐萧斧(1981) 「古汉语中的“与”和“及”」 『中国语文』 第5期 pp.374-383
张双棣外主编(1998) 『古代汉语字典』 北京大学出版社
周刚(2004) 『连词 与 相关问题』 安徽教育出版社 合肥 pp.156-177
周生亚(1989) 「并列连词“与、及”用法辨析」 『中国语文』 第2期 pp.137-142
王力(1993, 1997) 『古汉语常用字字典』 商务印刷馆出版 北京

要 旨

本稿は、万葉集の中で和歌以外すなわち、題詞・左注などの漢文体を対象にし、万葉集に見える「与」と「及」の表記字の用法を通じて、その受容過程と訓読法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与」は、総28回用いられているが、介詞と見られるのが4回あった。注釈書によって訓読が異なり、介詞とも連詞とも見られる巻1-84、巻2-140の場合は、文脈だけではなく文法構造面からの分析によって、「副詞類型」に属する介詞であるので、大系本の訓読の方が望ましいと言えよう。連詞と見られるのは6回あったが、巻4-680の場合、小学館本によると、頭註では連詞で、訓読では介詞の扱いをする矛盾した説明がなされている。更に「卜格」をとっている「与」すなわち、「A+与+B+別」の「与」に対し、「ヲ格」をとる動詞「別」と関連づけ、これは違例であり、和習漢文の影響であるので「日本語的な用法」であると説明している。これに対し、古代中国資料の検討を通じて「A+与+B+別」と「A+別+B」の類型は、ともに正統漢文体であって、その類型の差は「別」の自動詞と他動詞の使い分けから起因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諸注釈書の分析の誤謬を指摘した。したがって、巻4-680の「与」は連詞の用法として正しいと考えられる。動詞として使われたのは総12回あるが、「送与」と「贈与」のような複合動詞「おくりあたふ」に用いられたのが3回、単独動詞「あたふ」に用いられたのが9回見えた。「与」は「上位者が下位者にあたふ」という意味で使われ、日本語では敬語性をもつものの、中国資料での該当字の例を検討し、本来の「与」は敬語性とあまり関係のない字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これにより日本語の中での「与」の敬語性は日本語受容過程から生まれた日本語的な意味追加であるという見解を提示した。

韓国金石文の資料では、判読が困難である1例を除いて、介詞で3回、連詞で4回、動詞「分与」が1回見られ、その他に音借字で6回(地名表記1回、終助詞表記1回、動詞表記1回、人名表記3回)が見られ、万葉集と比べると多様に用いられていた。

「及」の場合、介詞はただ1例に過ぎないが、その理由について古代中国資料に基づいて漢時代以前の表記方式を踏襲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を述べた。連詞は総10回が見られたが、介詞：連詞の比率が1：10で、「及」は主に連詞用法を担当しており、使い分けが曖昧な例はなかった。10例は基本類型である「A+及(and)+B」に2回、「及」の独特な用法である「多様な文章成分」に3回、「未尽」用法に3回、「多項」用法に2回が用いられ、「及」の本来の用法に適合した使い方を見せていた。動詞は総7回が見られ、「およぶ」の訓読に4回、「しく」の訓読に2回、「いたる」の訓読に1回が用いられたが、この内「いたる」と訓読している巻19-4168の訓読について古代中国資料と万葉集全体で「いたる」を検討し、「およぶ」と再読すべきであるという見解を提示した。

韓国金石文の資料での「及」は、連詞用法として、基本類型に2回、多項に2回、未尽に1回、そして動詞に3回が見られた。万葉集と同様に「及」の元来の用法に充実した使い方ではあるものの、官等名に12回、官職名に1回、人名に2回の例が見られ、万葉集に比べて様々な用法が行われていた。

キーワード：万葉集、与、及、介詞、連詞、敬語性、別、受容過程、訓読、韓国金石文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